



전북 구단은 19일 “한국축구 레전드 박지성을 어드바이저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박지성은 전북을 통해 K리그에서 첫 발을 내딛는다. 사진제공 | 전북 현대

‘박지성과 동행’ 전북 2013년에도 ‘탐냈다’?

김상식 감독 제안 어드바이저로 위촉
은퇴 염두 에인트호번 선수 때도 구애
최강희 감독 나섰지만 인연 닿지 않아

한 번 찍으면 어떻게든 데려온다. K리그1(1부) 전북 현대의 뚜렷한 기조다. 일단 스카우트하기로 결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을 비롯해 조재진, 이동국, 김남일, 조성환, 애ня요, 하대성, 예두, 이근호, 로페즈 등 전북의 오늘에 일조한 전·현직 스타들은 그렇게 녹색 유니폼을 입었다.

전북은 19일 또 다른 빅뉴스를 발표했다. 한국축구의 한 시절을 풍미한 ‘레전드’ 박지성(40)을 어드바이저(자문)로 위촉했다는 소식이다. 전북은 “프로·유소년 선발과 육성, 스카우트, 훈련 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이 친분이 두터운 박지성을 자문으로 영입하는 제안을 허병길 대표이사, 백승권 단장 등 구단 수뇌부에 처음 제안하며 접촉이 이뤄졌다. 마침 박지성도 진로를 고민하던 터였다. K리그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18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당초 전북은 ‘테크니컬 디렉터’를 염두에 뒀다. 그런데 기술 파트에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굳이 활동범위를 좁혀 많은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묵혀둘 이유가 없었다. 직함은 ‘어드바이저’이지만 여러 부분에 관여한다. 전북은 ‘김상식호’ 코칭스태프와 동일한 임기를 어드바이저에게도 보장했다. 클럽의 오늘과 내일에 기여할 인재를 중용한다는 의지다.

전북은 이전에도 박지성을 눈여겨봤다. 2013년 여름이다. 박지성이 은퇴를 염두에 두고 퀸즈파크레인저스(잉글랜드)를 떠나 PSV에인트호번(네덜란드)으로 이적한 무렵이다. 업무보고 차 모기업을 방문했던 당시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에게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회장(당시 부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다. “박지성을 데려오면 어떻게요?”

최 감독이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에게 연락했고, 구단은 연봉 등의 조건이 포함된 구제적 제안을 했다. K리그 구단이 박지성에게 직접적으로 오퍼를 넣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다. 마침 에인트호번과 협상이 진전된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전북과 박지성은 동행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박지성 카드’를 검토했다. 3연임을 확정하고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권오갑 총재(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회장)가 박지성에게 “K리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이든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경남 남해에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선수단과 만날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리그를 경험했다.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튼튼하고 건강한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키움, 샌디에이고로부터 김하성 이적료 선입금 받아

“김하성 이적료 절반 ‘30억’ 받았네요”

“지난 14일 날짜로 첫 금액 들어와”
나머지 50% 12월·내년 7월 입금
옵선 최대 달성땐 90만 달러 추가
인센티브 달성 금액 15%도 받게 돼

키움 히어로즈가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김하성(26)의 이적료 일부를 받았다. 키움 김치현 단장은 19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샌디에이고로부터 김하성의 이적료 50%를 먼저 입금 받았다. 14일 날짜로 첫 금액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5년 최대



키움은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김하성의 이적료 중 50%를 14일 입금 받았다. 사진출처 |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트위터

3900만 달러(약 429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 이 중 보장은 4년 2800만 달러(약 308억4000만 원)로, 원 소속팀 키움에 받을 이적료는 552만5000달러(약 60억9000만 원)다.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따라 KBO리그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2500만~5000만 달러에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면, 원 소속팀은 2500만 달러의 20%(500만 달러)와 나머지 초과금액의 17.5%(52만 5000달러)를 이적료로 받는다.

키움은 전체 이적료 552만5000달러의 50%인 276만2500달러(약 30억 4500만 원)를 14일 먼저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2차 입금액인 138만1250달러는 올해 12월

31일, 3차 입금액인 138만1250달러는 내년 7월 1일 입금된다.

키움은 샌디에이고로부터 받는 금액은 김하성의 활약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는 김하성의 계약에 포함된 옵션 때문이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옵션 계약을 최대로 달성할 시, 키움은 9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 금액은 김하성의 옵션 포함 5년 계약이 끝나는 2025년 월드시리즈 최종전 종료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또 매년 지급되는 김하성의 인센티브에 대한 달성 금액의 15%를 키움에 가져가게 된다. 이 금액 역시 매년 월드시리즈 최종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받는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대한올림픽위원회〉

통합 막는 ‘KOC 분리’ 이기홍 회장의 대처는?

정부, 조직변화 이유로 분리 추진
다수 체육인들 “NOC 자율성 침해”
이 회장 “대화로 합리적 방안 도출”



이기홍 회장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한 이기홍 당선자(66)의 핵심 과제는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문제다. 정부와 입장차가 크고,

적잖은 갈등을 빚는 쟁점 사안이다.

체육회와 KOC는 현재 통합된 상태다. 국내 체육현안은 물론 선수단 선발 및 관리, 해외파견 등 올림픽 관련 업무도 체육회가 관장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추진 중이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 사태에 따른 체육회 조직 변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대는 한편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효율적 스포츠외교를 위해서도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관리, 업무 분담 등은 차치하고 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몹시 우려스럽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물론 국제축구연맹(FIFA)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도 ‘큰 정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체육회장 선거 과정은 정치판 못지않게 혼탁했다. 온갖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비난, 제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인단의 피로감이 상당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으로 한바탕 흥역을 았았다.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선 조직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체육인들은 “일방적 분리는 올림픽 현장에 위배되고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율성 침해로 볼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통합한 체육회가 출범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간신히 정착단계에 놓인 상황에서 조직이 분리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IOC의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원한다고 쉽사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 통합과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KOC 분리안’을 재선에 성공한 이기홍 회장이 어떻게 해결할까. 이 회장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올해 LPGA 투어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가 22일 개막한다. 지난해 2월 ISPS 한다빅 오픈 챔피언인 박희영, LPGA 투어 통산 5승에 도전하는 허미정, 지난해 슬럼프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한 전인지 등 한국선수 3명이 출전한다(왼쪽 사진부터). 하지만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톱10에 오른 한국선수 5명이 참가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상금 842억원’ 돈잔치 시즌 스타트 박희영·허미정·전인지, 첫승 도전

LPGA 투어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22일 티샷

고진영·김세영·박인비 등 불참 속
한국선수 자존심 걸고 첫대회 사냥
‘전설’ 소렌스탐 유명인 부문 출전
ML 레전드 존 스몰츠와 승부 눈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역대 최대 상금 규모를 예고한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첫 대회의 문을 연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 등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세계 톱랭커들이 불참하면서 맥 빠진 개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시즌 LPGA 투어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가 22일(한국 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스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덴다(파71)에서 펼쳐진다.

11년간 LPGA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끈 마이크 완 커미셔너가 새해 초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LPGA 투어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총 34개 대회에 총상금 7645만 달러(842억 원)의 역대 규모 시즌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는 당초 33개 대회 총상금 7510만 달러 규모로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탓에 대회 개최수가 18개에 그쳤다.

180만 달러(19억8000만 원) 상금이 걸린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는 2018~2020년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CM E그룹 투어챔피언십 우승자 고진영을 비롯해 김세영(28), 박인비(33) 등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세계랭킹 1~3위는 물론 9위 김효주(26), 10위 박성현(28) 등 톱10에 포함

된 한국 선수 5명이 모두 불참한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모두 25명. 세계랭킹 톱10 중에서는 4위 넬리 코다(미국), 5위 대니엘 강(미국), 6위 브룩 헨더슨(캐나다) 이 나선다. 한국 선수는 3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2월 ISPS 한다빅 오픈 챔피언 박희영(34)과 LPGA 투어 통산 5승에 도전하는 허미정(32), 지난해 부진 탈출의 계기를 마련한 전인지(27)가 새해 첫 대회에 나선다.

이 대회는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LPGA 투어 선수들과 조를 이뤄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유명인들은 LPGA 투어 선수들과 별개로 변형 스테이 불포드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LPGA 투어 통산 72승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51·스웨덴)과 미국 메이저리그 명투수 출신 존 스몰츠(54·미국)도 유명인 부문에 출전한다. 소렌스탐이 공식 대회에 참가하는 건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 스몰츠는 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